

교회 소식

1.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12월 성탄일에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들, 시상품을 기증해 주신 성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4.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는 말씀과 함께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5. 2025년도에 교회 각 분야에 섬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6. 올해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7. 조주찬 형제 김정연 자매 가정 싱가포르로 이주합니다.
8. 찬양을 인도로 4개월을 섬겨주신 김종두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 이태한 담임목사는 오늘 은퇴합니다. 그동안 함께 교회를 섬긴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이 파송됩니다.

12월 사역일지

12월 1일(주일)
선교회 총회
12월 2일-6일
한주간 기도회
12월 22일 (주일)
성탄주일
12월 25일
성탄예배
12월 29일 (주일)
송년주일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후 1:00
아동부 오후 1:00
중고등부 오후 1:00
청년부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ZOOM)
화,수,목,금 오전 5:50

예배 봉사자

예배안내: 김혜정
새신자안내: 이기중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박혜정

온라인헌금 안내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 계좌: ASB 12-3042-
0352091-00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롬 12:1-2)

갈보리 교회

CALVARY CHURCH

송년주일

26권 52호

2024년 12월 29일

교회 창립 1999년 7월 18일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담임목사 이태한

주일 예배 순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출애굽기 15:11,13
찬송*	35장 / 다함께
참회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284장 /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신명기 34:1-12
찬양대 찬양	행군 나팔 소리에 / 찬양대
설교	인생의 마지막과 시작 / 이태한 목사
찬송	301장 /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신명기 7절/다함께
응답송*	감사 위에 감사 / 다함께
축도*	이태한 목사

공동성경읽기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
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
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신명기 34:7

다음주일 기도순서

1월 5일 김창조 집사
1월 12일 장경희 집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
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 둘 잃어가고 그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디어졌습니다.

베트남 사역, 어느덧 17년이란 햇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트남의 사역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세우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5개 현지 교회를 통하여 장학사역, 대학생 사역, 사랑의 집 짓기, 전도, 구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푸퉁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도전이며 은혜입니다. 늘 전도에 목말라 하시던 모습이 그려집니다. 베트남은 이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사로 오면서 하나님에게 베트남 복음화는 젊은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20대 청년들이 호치민에서 찬양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나 하늘의 응답을 받으며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 기도제목

1. 지혜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해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2. 현지 교회가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3. 저희 부부가 건강하고 성령충만 하도록.

공동기도제목

1.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도록.
2.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 삶의 어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수요예배

가정예배로
드려드립니다.